**에너지전환 청년 프런티어 2기 현장답사 개인 결과물**

<주민수용성 확대 방안을 위한 현장답사: 서귀포시 대정읍을 중심으로>

에너지전환 청년 프런티어 2기 이학래

에너지전환 청년 프런티어 2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팀은 2050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진행하는 데에 필수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2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 제주도에 다녀오게되었다. 제주도 일정 이외에도 1월 28일 분당 그리드위즈, 2월 8일 두산중공업 미팅을 진행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팀 중 주민수용성팀은 동일 1리 주민들, 일과리 주민들, 영락리 주민들, 하모3리 주민들, 두산 중공업, 도청을 직접 이해관계자라고 설정하였으며 간접이해관계자로는 제주 에너지 공사, 대정읍민, 핫핑크돌핀스로 설정하였다.

인터뷰는 제주도청 저탄소정책과 신재생에너지팀 고병구 주무관님과 CFI 총괄팀 윤종식 주무관님, 제주에너지공사 황우현 사장님, SK D&D 풍력사업본부 강보민 소장님, 두산중공업 EPC BG 풍력영업팀 한명훈 부장님, 박지웅 차장님, 중립입장을 갖고있는 전 청년단체 위원 대정읍 주민, 찬성입장을 갖고있는 동일 1리 주민, 반대 입장을 갖고있는 동일 1리 주민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위의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한 결과 산발적인 데이터를 보고 느낀 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고, 강경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혼란을 겪고있다고 생각했다. 그 중 주민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접촉할 기회가 없어서 혹은 관심을 갖지 않아서 가장 에너지 관련 인식이 적다고 느껴졌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의견을 갖고있는 이해관계자들이 하려는 언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있고 거부하려는 태도가 가장 근본적인 주민수용성 확보에 어려운 요인이라고 보았다. 주민들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단순 대가성 보상이 아닌 주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은 무엇일지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찾아야 한다는 점과 도 차원의 중재와 인식제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도청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주무관님들과 기업에서 풍력사업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만나 각각의 이해관계자가 생각하는 요인에 대해 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 중 설득력 있는 요인으로는 각 업무를 진행하는 담당자들이 장기간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이직을 하거나 부서 이동과 같은 단절이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솔루션을 제공을 하기 위해선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대적인 교육 혹은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팀 중 주민수용성팀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인식 제고 행사와 수익성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하여 거부감은 줄이고 에너지 전환 인식은 높이는 방안에 대해 모색 하고자한다. 이 방안을 토대로 대정읍에서 제주도로, 그리고 나아가 국민 수용성 확대 방안으로 어떻게 연결될 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